

전통과 현대를 잇는 지성의 가교

고급출판 선도하는 영미권 대학출판국 ... 상업적 성공까지

김두환

해법출판사 기획부장

오늘날 영국과 미국이 세계적인 출판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데는 수많은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 영국에 일반 상업출판사들로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학술서와 잡지 등 수준 높은 출판물들을 꾸준히 출판해온 오랜 전통의 대학출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수준 높은 출판물로 고급출판을 선도하는가 하면 일반 대중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독자들을 개발하는 데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반 상업출판 못지 않은 상업적 성공까지 거두고 있다. 옥스퍼드·케임브리지·코넬·하버드·시카고·에일·MIT·존스홉킨스 등 영미권의 유명 대학출판국들은 각기 연간 1천여 종의 도서와 100여 종의 학술 잡지를 출판하는 거대조직들이다.

능력 위주의 실무책임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임을 자랑하는 옥스퍼드대학 출판국(Oxford University Press)은 1468년에 설립됐다. 옥스퍼드대학 출판국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 옥스퍼드대학의 한 부서이자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대학당으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지 않으며 운영에 대해 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 출판국이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대학 내 각종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사용되거나 공익사업에 투자될 뿐 결코 대학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집이나 기획, 운영에 있어 일반 출판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독립성을 지닌다. 대학 교수를 회계감사로 임명하는 대신 출판국장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영입하고 모든 운영상의 결정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구성된 실무책임자들에 의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마치 사기업처럼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출판국 직원들의 임금체계나 인사고과 방법도 대학과는 전혀 다르다.

1896년에 미국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캐나다·호주·인도·아프리카·뉴질랜드·싱가폴·일본·홍콩·쿠알라룸푸르 등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옥스퍼드대학 출판국은 1879년에 출간된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비롯

한 수많은 사전들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제임스 머레이가 생애를 바쳐 만든 이 사전은 1990년대 초에 2판과 함께 CD-ROM을 선보였고 2005년에는 41만 5천단어를 수록한 3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옥스퍼드대학 출판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서를 출판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전문학·고전문학·역사·역사·시사문제·미국역사 등의 분야가 가장 두드러진다. 옥스퍼드대학 출판국은 다른 대학 출판국과는 달리 피쳐북과 같은 아동물도 활발하게 출간하고 있으며, 영어교재를 개발하는 옥스퍼드 ELT 역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1534년 설립된 케임브리지대학 출판국(Cambridge University Press)은 대학출판국으로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매년 1500여 종의 책과 125종의 잡지를 발간하며 그 책들은 190여 개국에서 판매된다. 대학 출판국 하면 으레 자기네 학교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의 책이나 출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케임브리지대학 출판국의 집필진은 98개국 2만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출판국의 대표적인 시리즈는 <케임브리지 컴패니언> 시리즈와 <칸토> 시리즈다. <케임브리지 컴패니언> 시리즈는 문학·철학으로 나뉘 그 분야의 인물과 이론, 사조 등을 심도 있게 정리한 학술서들로 이루어진다. <칸토> 시리즈는 평균 25페이지나 되는 고가의 학술서적을 7~9페이지의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페이퍼백으로 만든 시리즈물. 학술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칸토> 시리즈는 고전과 현대를 망라하며 문화·음악·철학·정치·고고학·역사·과학분야의 책을 출판하고 있다.

대중서까지 출판하는 하버드대 출판국

미국 최대의 대학 출판국은 하버드대학 출판국(Harvard University Press)이다. 1913년에 설립된 이 출판국은 학술서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서까지도 출판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출판국의 대표적인 출판물은 <로엠펙 클래식 라이브러리(Loeb Classical Library)> 시리즈다. 1933년 하버드대학 졸업생이자 이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제임스 로엠펙이 사망한 후 유지

미국과 영국의 대학출판국은 일반 상업출판사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학술서와 수준 높은 교양물로 일반 대중까지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옥스퍼드·케임브리지·코넬·하버드 등 영미권 유명 대학의 출판국은 연간 1천여 종의 도서와 100여 종의 학술지를 출판하는 거대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출판국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대 전경.



에 따라 이 시리즈의 판권을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 기증함으로써 하버드 대학 출판국에서 출판되기 시작한 이 시리즈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원문과 영어로 된 해석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193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현재 총 480권에 달하는 방대한 시리즈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부씩이나 팔려나가고 있다.

1908년 대학 졸업생과 그의 아내에 의해 시작된 예일대학 출판국은 1950년대 초 처음으로 밀러언셀러를 기록한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를 출판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예일대학 출판국은 구소련과 공산주의의 역사를 다룬 <공산주의 연대기> 시리즈, 중국과 동양의 문화를 집대성한 <중국 문화와 문명> 시리즈, 서양문명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분석한 <서양 전통에 대한 재고> 시리즈 등과, 현대 비평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철학이론과 비평이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예일 프랜치 스타디스>와 같은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다.

그외에도 미국에는 예술과 인문과학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술지로 손꼽히는 <크리틱얼 인콰이어리>를 출간하는 시카고대학 출판국, 문예비평지의 권위를 자랑하는 <다이얼 크리틱스>를 출간하는 존스홉킨스대학 출판국, 과학과 기술 분야의 출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성을 자랑하는 MIT대학 출판국 등 일일이 언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대학출판국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출판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다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미국 출판계를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주역들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 이미 16세기에 성구관에서 뛰어난 학자들을 양성해 학문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풍토를 만들었던 나라, 한국의 대학출판은 오늘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영국이나 미국의 대학출판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출판은 전혀 다른 규모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소속 대학의 한 작은 부서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학출판국들은 기껏해야 자기 학교 교재로나 쓰이는 학술서 외에는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 시리즈나 대중적인 출판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대학출판사에서 이동출판물을 내는 것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출판이 외국의 출판에 비해 가장 뒤처지는 부분이 바로 대학출판이다. 우리 출판산업의 후진성이 많은 부분 이런 대학출판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학출판의 활성화는 한국의 출판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